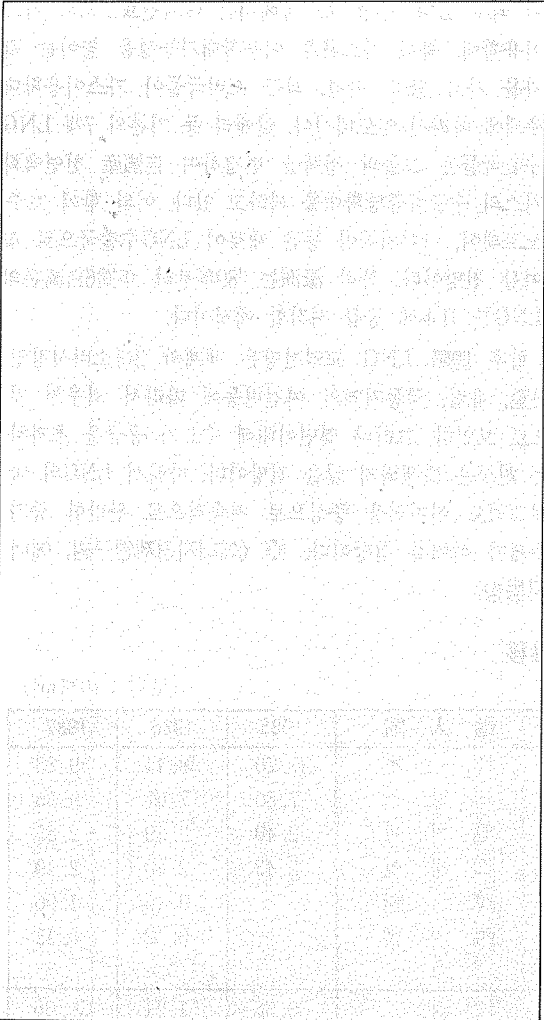


1. OPEC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들의 소비국에 대한 하류부문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OPEC의 하류부문 진출현황과 전망



이미 진출한 나라는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 등 6개국으로 국별 진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쿠웨이트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걸프가 소유하고 있던 정제·판매설비의 買收를 정력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83년 베네룩스 3국을 시발로 하여,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英國으로 진출하여 '88년 9월 현재, 유럽 지역에서 정제능력이 약 12.5만 b/d, 주유소 수가 약 5,000개로 전해진다. 또한 국명을 나타내는 "Q8"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전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83년 西獨 VEBA OEL社와의 합병으로 정제회사 RUHR OEL社를 설립하여, 西獨의 하류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86년에는 美國의 시트고社와 채플린社 소유의 주유소를 매수하였으며, 동해안의 석유제품 판매회사인 스투어트社 주식의 50%를 취득하는 등 美國의 하류 부문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윤활유와 아스팔트 제조 회사인 니나스社에 50%의 자본을 참여하는 등 하류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리비아는 '83년, 이탈리아에 10.5만 b/d의 크레모노 정유공장을 갖고 있는 TAMOIL ITALIA 주식의 75%를 취득하였다. 또한 '88년에는, 石油에너지에 관한 해외투자를 감독하는 오일·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소비국에 대한 하류부문 진출을 일원화하여 강화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88년 11월, 텍사코社가 美國 동부에 전개하고 있는 정제 판매 부문 권익의 50%를 구입

하여, 합작으로 새로 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였다. 이 합작기업은 Delaware(14만 b/d), 콘벤트(22만 b/d), Fort Arther(25.5만b/d)의 3개 정유공장과 약 4,000개의 주유소를 소유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부터 최대한 60만 b/d의 原油를 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아랍에미리트는 '88년 프랑스 石油(CFP)의 주식 8.4%를 취득한 것에 이어, 스페인의 석유정제 그룹 CEPSA의 주식 10%를 획득하였다. 또한 中國 광동성 심천 특구에 3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능력 300만 톤의 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88년 들어 美國기업(선社, 아르크社, 휘브로社), 프랑스의 엘프社, 이탈리아의 아지프社 등과 정유공장 매수에 대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루크만 石油장관은 「OPEC 회원국이 소비국의 하류부문으로 진출하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이며, 진출하지 않는 나라는 시류에 뒤떨어질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상이 국별로 본 진출상황인데, 이것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흥미있는 특징 두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즉, ①'83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리비아의 3개국을 때를 같이하여 진출하였다는 점과, ②'8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의 3개국 또한 일제히 진출을 개시하여 OPEC내에서 확산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83년과 '88년의 두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진출하게 된 배경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진출현황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그 진출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즉, 쿠웨이트로 대표되는 손자산구입 투자방식과 베네수엘라로 대표되는 부분 투자방식이다.

손자산구입 투자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쿠웨이트 뿐이다. 이 방식은 소비국의 정유공장, 주유소를 전면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매수부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자기책임을 관철할 수 있다. 자금이 풍부하고, 경영의 노하우의 축적이 있는 쿠웨이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분 투자방식은, 소비국의 石油기업에 투자하여, 합작으로 정유공장,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이다. 소비국으로서의 온건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경쟁상대가 참

여한 것이 아닌, 파트너가 참여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2. 하류부문 진출의 배경

(1) 소비국측의 배경

OPEC는 '70년대 전반, 메이저로부터 자국의 상류부문을 국유화등의 조치로써 탈취한 후, 자연히 다음 목표를 하류부문의 진출에 두었다. 그러나 소비국측이 소비지정제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OPEC 산유국들은 하류부문 진출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자 소비국측에 변화가 일어나 양상이 바뀌었다. 즉 메이저는 두차례의 石油가격 폭등으로 인한 石油수요의 대폭 감소 및 시장에서의 경쟁격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정유공장 판매설비를 폐쇄한다든지 매각함으로써 비채산적인 부문이나 지역에서의 철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자유세계의 정제설비 능력은 '80년 6,570만 b/d에서 '86년 5,623 b/d로 947만 b/d나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美國 280만 b/d, 西유럽 540만 b/d로 감소가 현저하였다. 한편, 판매부문에 있어서도 제품 판매량의 감소에 대응하여 주유소의 감축이 요구되었다. 폐쇄·매각된 주유소의 수는 메이저 7社 합계로 수만개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OPEC제국이 이같은 소비국측의 파잉설비·판매부문에 착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국제 석유산업에 있어서 경영환경 변화의 과정이 바다권이었던 '83년에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리비아가 메이저의 철수가 이루어진 수익성 나쁜 하류부문에 그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일제히 진출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2) OPEC측의 배경

한편, OPEC측의 배경은 무엇일까. 진출한 바와 같이 상류부문을 장악한 OPEC가 하류부문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83년 당시의 石油수급은, 공급부족은 아닐지라도 공급과잉의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판로확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 하류부문 진출은 아니었으며, 소비국측이 매각에 나설지

라도 매수에 나섰던 것은 OPEC회원 전체가 아닌 특정국가, 즉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리비아 정도였다. 이들 3개국은 각각 자체사정 때문에 진출하였다.

쿠웨이트의 경우, 인구가 적고 국토도 좁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산업입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풍부한 石油수입을 운용하여 금융입국을 지향하고 있다. '83년에 걸프로부터 베네룩스 3국의 石油정제·판매설비의 매각이 있자 금융입국 쿠웨이트는 투자대상으로서 이것을 매수하였다. 이것을 매수할 당시, 쿠웨이트가 石油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매수가 쿠웨이트의 소비국의 하류부문에 대한 진출로 이어졌던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동국의 原油는 重質이면서도 高유황이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의 정제업자와 합작으로 제품화시켜 판매한다는 전략으로 진출하였다. 한편, 리비아도 이탈리아와 역사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출하여 있는 상태이다. 이들 3개국 이후, 한동안 그 뒤를 잇는 나라는 없었으나, '88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가 일제히 진출을 개시하여 OPEC내에서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후발참여 3개국이 진출하게 된 배경은 선발참여 3개국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88년은 선발 3개국이 진출했던 '83년에 비하여 石油수급이 심각할 정도의 공급과잉 상태에 있으며, 게다가 고정유가제라고 하는 전략이 형태화 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OPEC 회원국은 자구책으로 안정적 판로를 구하여, 소비국의 하류부문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선발 3개국이 자기 자체사정으로 진출했던 것에 대하여 후발 3개국은 石油공급과잉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구하려고 하는 OPEC 공통의 배경 때문에 하류부문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3. 향후 전망

(1) 진출전망

새로운 전략인 “하류부문 진출”은 현재 OPEC내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더욱 확대 되어 갈 것인가. 그것은 石油시장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자 시장이 될지, 구매자 시장이 될지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판매자 시장이라는 것은 OPEC가 카르텔의 기능을 회복하여 石油가격을 컨트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OPEC내에서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국으로 그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판매자 시장이 되면 原油는 힘들이지 않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공급의 판로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는 희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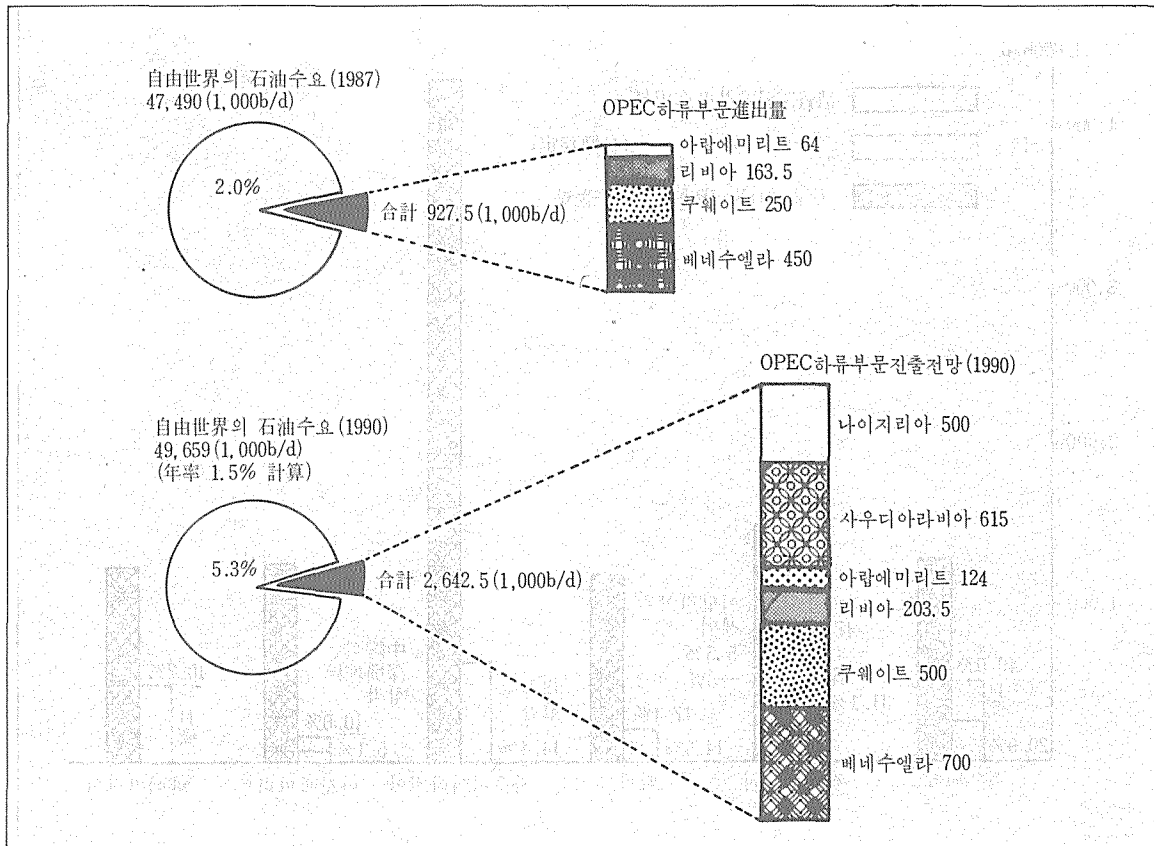
또한, 근대 국제석유시장의 실적을 보면, 原油가격의 상승은 하류부문의 실익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매자 시장이 되면, OPEC 회원국은

〈표-1〉 OPEC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 전망

		진 출 전 망
既 진 출 국	쿠 웨 이 트	•공급목표를 50만 b/d(현재 25만 b/d 공급) •美國, 極東으로의 진출에 관심있음
	베 네 수 엘 라	•공급목표를 70만 b/d(현재 45만 b/d)로 확대 •페레스 초대 대통령은 확대에는 비판적
	리 비 아	•이탈리아의 시장세어를 5.5%에서 8.0%로 확대목표 (8만 b/d→12만 b/d)
	사우디아라비아	•텍사코와의 합병회사 스타 엔터프라이즈社 설립 (60만 b/d 공급예정) •사우디아라비아産 原油가 이같은 일관 조업체제를 통하여 판매되기를 바랍(나제르 석유장관의 말)

		지 진출 전망
진출국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의 심천지구에 합작 정유공장 건설계획(300톤/년) • 진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루크만 석유장판 발언에서도 적극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공급목표를 50만 b/d
	이란 이라크 알제리 인도네시아 카타르 에콰도르 가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복구에 경주하며, 해외진출여력 없음(우선 내수대응) • 현지 경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당장 정제능력 확대계획은 없음. • 石油정제에 대한 기본적 정책은 국내 석유제품의 지급에 있으며, 제품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향후에도 소비국 하류부문에 대한 진출 가능성은 낮다. • 재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여력은 없다(현재, 가스 프로젝트에 힘을 쏟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의 1/4을 충당하고 있다.) • 재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여력은 없다(지진) • 재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여력은 없다.

〈그림 - 1〉 OPEC의 자유세계 하류부문 진출현황



하류부문에 진출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배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쿠웨이트 등은 자체 사정때문에 하류부문 진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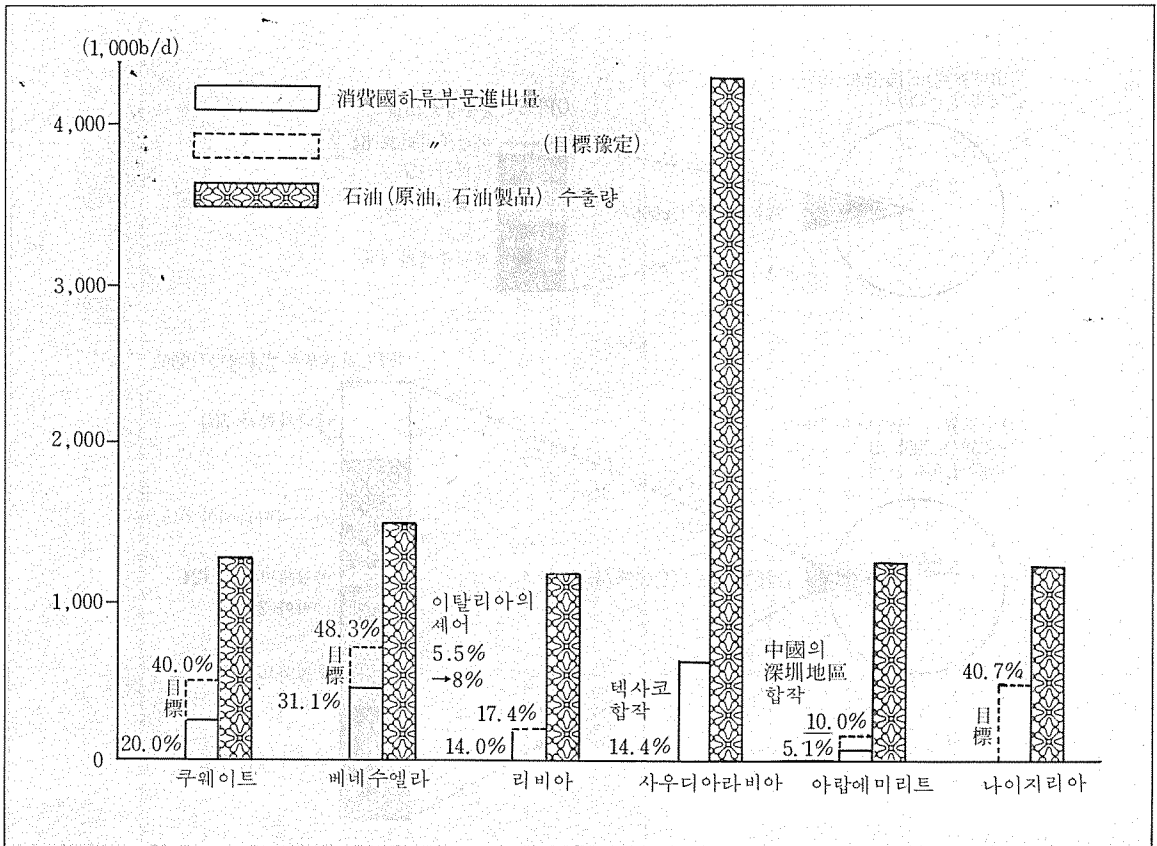
한편, 구매자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매자 시장이라는 것은, 현재처럼 石油수급이 공급과잉에 있으며, OPEC가 결정하지 않은 고정유가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는 OPEC 회원국은 안정적 판로를 구하기 위하여 하류부문 진출에 노력할 것이며, 어느 정도 OPEC 내에서의 확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1〉은 당면 OPEC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전망이다. 쿠웨이트는 현재의 25만 b/d에서 50만 b/d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의 술탄 사장에 따르면, 美國, 極東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70만 b/d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성중에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88년 12월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페레스씨가 확대에 비관적인 점이다. 리비아는 이탈리아 시장 확대에 따라 20만 b/d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나이지리아에 있어서는 나제르와 루크만 두 석유장관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도 中國에 연간 300만 톤의 능력을 갖는 정유공장 건설계획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未진출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란, 이라크는 전후복구에 경주하여 현재로는 진출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알제리는 石油정책상 진출 가능성이 없다. 카타르, 에콰도르, 가봉은 재정면에서 여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未진출국은 당장 진출할 가능성은 없다.

〈그림-2〉 OPEC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 현황



이상의 내용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이 <그림-1>이다. 이것은 자유세계 시장에서의 OPEC의 하류부문에 진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87년 현재, 진출량은 약 93만 b/d로 세어는 약 20%이다. '90년에 예상되는 진출량은 약 264만 b/d이며, 세어는 5.3%로 된다.

(2) 石油공급 안정보장에 대한 영향

소비국의 입장에서, OPEC에 의한 하류부문 진출은 石油공급 안정보장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안전보장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소비국 입장에서는 세계매장량의 약 7할을 차지하고 있는 OPEC라는 스폰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며, 한편, 스폰서인 OPEC로서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국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 사고, 정치적 사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세계에서의 세어는 '87년 2.0%, '90년 예상으로 5.3%이다.

만일 우발적 공급중단이 발생할지라도, 현재 수준의 OPEC의 하류부문진출, 또는 예상되는 정도의 확대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대의 추세가 되고 있는 OPEC 제국의 하류부문 진출. 이 새로운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그 동향이 크게 주목된다. □

□ 관 보 □

◎동력자원부고시 제89-4호

석유사업기금을 조정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요령

석유사업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정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개정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84-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9년 1월 31일
동력자원부장관

제1항(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금액)중 “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은 수입석유 1배럴당 미합중국통화 6.37\$에 통관일이내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89년 1월 31일 통관분부터 차기 개정고시 적용 직전 통관분까지 적용한다.